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2월 21일(음력 11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557 호

신도·사찰 사회복지활동 '의무'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입법 예고, 연구·교육기관 설치도
사회복지재단이 '관리 감독' … 논란 예상, 공청회 거쳐야

앞으로 불자들의 사회복지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역할도 강화된다.

조계종은 12월 12일 교구본사 및 단위사찰의 관할 지역내 복지활동을 독려하는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을 12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은 종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한 사회 활동을 하고 종단에 소속된 교구 본사 및 단위 사찰은 관할 지역내 사회복지 활동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불교사회복지 위원회 및 연구기관, 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또, 법안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스님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 불교사회복지 종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불교사회복지가 사회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사회복지의 방향이 개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라고 본다면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으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사회복지법인 단체 및 시설 지도 감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등 사회복지 제반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는 현재 종단 사회복지 업무가 정책 업무는 사회부에, 사무는 복지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개편해 일원화 시킨다는 것. 법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이 종단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종단 복지정책까지 총괄할 수 있게 돼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안 중 '종단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및 제반 활동 관리감독 기능'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항목은 앞으로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과 공청회를 통해 상당부분 법안 개정의 벽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서 등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해줘야 한다. 종단에서도 권리와 의무 모두 담보된 법안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종단 등록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재단과 복지시설 상호 연계하는 측면이 강하며 불교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불교사회복지를 종단 전체로 확산시켜 불교 사회복지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은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후 공청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법안을 조정하며 기획실과 법무위원실의 법안 검토를 거쳐 종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종회에 상정된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폭설 속의 산사 12월 들어 3주간 호남과 충청지역에 내린 대설로 농민들이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연일 내린 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산사는 교통두절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폭설이 내린 12월 17일 공주 마곡사 경내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스님과 신도들 모습. **마곡사=박재완 기자**

조계종 前 전계대화상 범룡 스님 원적

12월 19일 동화사서 전국선원수좌회葬 엄수

前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영당 범룡 대종사(사진)가 12월 15일 오후 3시 27분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92세. 법랍 72세.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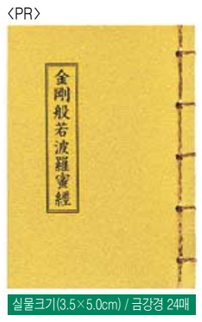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열반송이 다 뭐야!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라고 임종게를 남겼다.

영결식 및 다비식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일체의 조화나 만장을 사용하지 않고 검소하고 간결하게 19일 오전 11시 동화사에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수됐다. 또 다비 후 사리수거와 사리탑 조성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1914년 평남 맹산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29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4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스님은 수덕사 해인사 범어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으며 <화엄경> <능엄경> 등에도 능통해 선·교·율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왔다.

동화사 주지,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조실, 조계종 제1대 원로의원 등을 역임한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까지 동화사 비로암과 충주 석봉사 금봉선원 조실로 수많은 수좌스님과 후학들을 제접했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할'

그림·조태호

성공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 '인기 2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 관람객이 가장 즐겨 찾는 문화재는 황남대총금관(국보제191호)과 반가사유상(국보제8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바일전시안내시스템에 의한 관람객 동선 추적과 관람객의 북마크를 집계해서 분석한 결과를 12월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위는 황남대총금관, 2위는 반가사유상이었으며, 불교조각실의 약사여래가 그 뒤를 이었다. 전시실로는 고구려·신라·백제실과 불교회화, 불교조각실을 찾는 빈도가 높아,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는 하루 평균 2만3000명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나 영국 브리티쉬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을 웃돌고 있으며, 개관 44일째인 16일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지관스님·김재규 공단이사장·이재용 환경장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공감'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해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은 12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를 안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만 허락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리공단도 입장료 폐지에 찬성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관 스님은 "국립공원은 국민 정서를 함양시키고 심신의 피로를 푸는 기능이 있다. 국립공원이 본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관리공단에서 입장료 폐지를 역설하면 우리가 뒷받침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재규 이사장이 문화재관람료 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지관 스님은 "관련 사찰 주지들과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11월 25일과 30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청했다.

지관 스님은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년에 260억 원 정도 입장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장료 징수 폐지를)정부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圓 無影堂 梵龍 大宗師 全國 禪院首座會 葬 寂

訃 告

曹溪宗 前 傳戒大和尙을 지내셨고, 釋宗寺 祖室이신 無影堂 梵龍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9年(2005)年 12月 15日(陰曆 11月 14日) 午後 3時 27分 桐華寺 毘盧庵에서 入寂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佛紀2549(2005)年 12月19日(월) 오전 11시
■永訣式場 : 팔공산 동화사
■茶 毘 場 : 팔공산 동화사 연화대

재 손 은 문 후 별 원 시 다 주 다 영 호 접 섭 홍 재 지 의 총 집
장 지 부 장 호 고 증
명 : 법전 송담 진제
고 문 : 도견 종산 지혜 보성 도천 도원 수산 활안 녹원 원명 이두 정천 천운 동춘
지관 초우 혜정 범행 지유 고산
호 상 : 성수
장례위원장 : 지성
부위원장 : 고우 적명 현산 혜국
지도위원 : 정광 설정 법능 월서 청화 도영 근일
장의위원 : (선원대표) 할주 인각 기성 무문 성우 명정 현기 무여 원융 우송 성재 천진 정태 원각
도공 지환 정찬 현묵 일오 의정 영진 설우 불산 신흥 철산 일주 탄공 진효 종우 종선 효광 지현 철인 영선 의광 나월
(본사주지) 원담 정락 무산 정념 도공 진각 법정 성응 지성 법타 종상 현응 원정 대성 현문 혜승 원행 명응 종삼 영조 몽산 용주 법여 철안 일면
(중앙종무기관) 자승 동산 정민 탁연 지원 도진 시경 현고 법장 현종 일관 진명
(중앙종회의원) 장우 원택 지하 정유 장윤 중원 도후 영담 혜승 영배 진만 종광 평상 정인 지홍 학담 장옥 설송 법조 선광 보선 법보 향적 지만 지현 종훈 성관 광조 지욱 정묵 장적 월우 도완 도각 정문 진구 무이 선각 종열 지준 동광 법경 이암 원정 상운 성직 보원 정호 법광 정도 종본 성월 일화 무자 정안 현공 토진 정광 도문 법전 의연 혜림 보경 일문 덕문 효림 초격 원경
(비구니회원로) 광우 명성 혜해 법희 진관 법운 삼륜 경희 묘엄 경순 성타 정훈
(중진, 중앙종회의원) 명우 자민 지원 재운 묘관 불필 재희 지환 보각 수현 본각 도문 운달 계호 흥륜 경륜 정성 가혜원 서혜원
집행위원장 : 강설
총 도 감 : 선광
의 전 : 대법 원일 정산 허석구
지 객 : 일진 본해 근허 고우 지삼
재 무 : 법경 윤정희
홍 보 : 효광 상원 우경 이수찬 이재원
섭 외 : 삼현 종현 반영우
접 수 : 도석 혜진 관성 서태경 김미향
호 법 : 법혜 승석 이만희
영 선 : 이종길 한곤주 박세영
다 비 장 : 금당선원대중 유원효 토동기 이인식
주차통제 : 인궁 혜마
다 각 : 동호 혜공 정욱 외 산내 암자 대중
시 자 : 금륵 도정 도명(조실) 혜성(주지)
원 주 : 시연
별 좌 : 덕기
후 원 : 영덕스님회 운문사 강원 대중
문도대표 : 초세
은 상 좌 : 초세 해림 법상 수련 성주 성학 성관 성팔
손 상 좌 : 해원
재가제자 : 박완일 수산거사 강대용 동일거사 동명거사 비로암 보광전 재가자선원 보현회 일동

※ 대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일체의 조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 동화사 종무실 053)985-4404, 982-0101·2)
無影堂 梵龍 大宗師 全國 禪院 首座會 葬儀委員會